

일곱째 주 - 한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아래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5-7 분 동안 나누십시오:

-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 세 가지를 나눠보십시오.
- 이때까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소리 내어 읽기

사무엘상 1 장-2 장 10 절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1.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 a. 한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한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 b. 한나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2. 본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 a. 자신이 마침내 얻은 소중한 아들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남겨두고 오는 한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 한나가 중요한가?

한나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이며,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국(사울 왕과 다윗 왕의 왕국)이 건설되는 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장차 “여호와와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웁니다.¹ 이런 사무엘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나의 비통한 기도와 아들을 낳기 원하는 절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한 여자, 한 아내로서 한나에게 자기 남편을 위해 자녀, 특히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던 것은 사회적인 수치가 따랐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고는 그 자손의 대를 이을 수가 없었지요. 엘가나의 아내들이었던 한나와 브닌나는 둘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곁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착각할 정도로 절실한, 격한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감정, 자신이 느끼는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을 억누르고 억제하지 않으며, 품고 삭이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한나는 가장 깊은 소원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 드렸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¹ 사무엘상 13 장 14 절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갑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지켰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한나처럼 그의 괴로움과 번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았습니다.² 한나는 우리에게 영혼을 다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³ 한나는 고통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쏟았습니다.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녀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했던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락함이나 권력, 또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지지를,⁵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⁶ 예수님도 한나처럼 자신의 감정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모두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그의 삶을 포기하고, 고통받기를 택하였고, 죽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한나와 예수님은 모두 우리에게 소원의 좋은 점들을 보여줍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더욱 좋은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 장 1-10 절에 등장하는 한나의 노래는 오실 왕 메시아를 가리켜 노래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가리키는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되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3. 우리는 어떻게 이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 a.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릴 수 있습니까?

² 마태복음 26 장 36-46 절

³ Matthew 6:9-13

⁴ Sharifa Stevens, "Praying through the Pain: Hannah's Example,"

http://blogs.bible.org/engage/sharifa_stevens/praying_through_the_pain_hannahs_example.

⁵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 누가복음 4 장 1-13 절

⁶ 마태복음 26 장 38, 41, 44 절

b.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을 해석하는 여섯 가지 법칙: 시간이 충분하다면 같이 읽으십시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1. **문학적 해석:** 장르—이스라엘의 첫 두 왕과 선지자 사무엘이 그 두 왕을 기름부어 세운 역사를 기록한 신학적 역사서.⁷
2. **역사적 해석:** 사무엘상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둘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무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한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기록합니다.
3. **신학적 해석:**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날부터 광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정착할 때까지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증인이 되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 중에 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치적인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는지 알려줍니다.⁸
4. **문화적 해석:** 당시 순례자들은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중에 절기를 지키러 특정 지역으로 여행하여 (예를 들면, 실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실인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길러진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나 세례요한처럼 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잠시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지켰던 경우도 흔했습니다: 역자 주).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 음주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피했습니다).
5. **성경의 큰 그림:** 사무엘상은 속세의 이스라엘 왕들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결국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내세의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6. **성령의 인도하심:** 사무엘상에서 성령은 사무엘, 사울, 또 다윗의 삶을 통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구별된 정체성 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사무엘상에 대한 개요와 한나의 이야기의 배경을 보여주는 아래의 영상을 같이 시청하십시오 (“Read Scripture: 1 Samuel” 처음부터 2 분 32 초까지; 시간이 있다면 더 시청해도 괜찮지만, 한나의 이야기에 중요한 내용은 처음 2 분 동안에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Oju5Dw0V0>

⁷ “1 Samuel,” <https://www.biblica.com/resources/scholar-notes/niv-study-bible/intro-to-1-samuel/>.

⁸ Ibid.

기도로 마치기

오늘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서로 나눴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준비되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소원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 놓을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 놓을 수 있게 용기를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